

광주·전남 후보경쟁 조기 접화하나

민주 지방선거 김성순 서울시장 출사표 신호탄 시장 3선 도전에 강운태·이용섭·조영택 등 도전장 지사 3선 고지에 주승용·이낙연·이석형 경쟁 합류

광주시장 후보를 노리는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시장 출사표 선언이 나오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 내 경쟁이 조기 접화되는 분위기다.

광주에선 박광태 시장의 3선 도전이 접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무부 장관과 관련 광주시장을 지낸 강운태 의원을 비롯,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용섭·조영택 의원과 정동채·양형일 전 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경선을 위한 행보에 들어가 출마기자회견, 대학강연 등을 통해 밑바닥 다지기가 한창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박준영 지사가 3선의 고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재선의 주승용 의원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이석형 환경군수 등이 경쟁대열에

합류할 태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24일 지방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이 나와 조기 경선 레이스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공식 출마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출사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미디어 법, 4대강 사업, 예산심의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참여한 대립을 계속해와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논의는 제2선으로 밀려 있었지만 이날 서울시장 경선 출사표가 나와 자연스럽게 선거분위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를 주도해 온 재선의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여년 행정경험을 강조한 뒤 "토목적

사고의 시정, 아마추어리즘이 아닌 '섬기는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서울'로 바꿀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시장직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며 "저는 중도 개혁과 실용을 중시, 중간표와 개혁을 바라는 보수층 표를 폭넓게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으로 유력후보였던 친노계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조기에 출마를 선언,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의장, 최규식 서울시장 위원장, 구 민주계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박

영선 의원과 김근태, 김한길, 신계륜, 유인태, 이계안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일각에선 외부 인사의 이름도 거명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출마기자회견을 가진 송영길 최고위원도 당권 도전에서 서울시장 쪽으로 선회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송 최고위원은 비교적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 야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 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지만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곧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은 데다 박원순 변호사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어 야권 내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오는 30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경기지사 후보군으로는 원혜영, 이종걸, 김부겸, 정장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충원 DJ 표역 5만여명 다녀가

서거 100일 오늘 기도회... 잇단 추모 음악·강연회

이회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일째인 2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기도회를 갖는다.

김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공보실장은 24일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00일을 맞아 묘역에서 간단한 기도회를 갖고 참배할 예정"이라며 "기도회에는 가족과 김대중평화센터 및 김대중 도서관 임직원, 국민의 정부 국무위원, 비서진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안장된 국립현충원 묘역에는 지난 22일 현재 5만여 명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라모

스 호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모시 요시로 전 일본 총리, 팔리오바벤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등 외국 귀빈들의 참배도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외국에서의 추도회 및 추모 강연회도 이어졌는데 미국 애틀랜타(9월29일), 일본 도쿄(11월13일), 일본 오사카(11월14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11월17일)에서 추도회가 개최됐으며 다음달 2일에는 미국 워싱턴 우드러 힐스 센터 주관으로 '김대중 다시 찾기-김대중이 한국에 남긴 유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내에서는 추모음악회(목포)와 김대중도서관 추모 강연(서울), 김대중 사상대강좌(광주) 등이 개최됐으며 다음달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는 김대중 평화센터 주관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가 개최된다.

한편, 매주 2차례 가족, 측근 인사들과 국립현충원 묘역을 찾고 있는 이회호 여사는 내년 출간을 목표로 김 전 대통령 자서전의 마무리 집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회호 여사는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으며 29일에는 목포를 방문,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대외 활동에서 조금씩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산강 기공식 참석 시·도지사 입장

“4대강 사업, 당론과 입장 동일”

박광태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당론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별개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4년 전 시·도민들에게 한 선 거공약”이며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했던 사업이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뱃길 복원행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는 정파를 초월한 모든 국민의 바람으로,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 발언이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은 공약사업”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 참석과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다.

행사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며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 기공식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라면서 “정치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달리 박준영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었다”면서 “다른 강은 모르지만, 영산강 만큼은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원칙적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가 오른 손학규 정치 복귀 위망업?

송영길 출판기념회 참석 국회 방문

10·28 재·보선 수원 장안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이끈 뒤 출연한 춘천으로 떠났던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손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로 온 것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손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았다.

손 전 대표는 또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역량과 잠재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몸을 던질 것’,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하겠다”

는 의지를 갖고 자신을 개척하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복귀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그럼에도,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은 높고 있다. 손 전 대표가 송 최고위원처럼 과거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과의 접촉빈도를 늘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정계 복귀의 시기는 손 전 대표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www.hanbitgosi.co.kr

2010년 공무원정원 4600명 증원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0일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 7월 24일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9급 공무원

you can ~

9종합반 6개월
글공합반 회원제 모집
(교재 포함 100만원)
1개월 수강료 20원, 교재 189,000원

특별혜택에 두 배 만족을 더욱 할 수 있다

= 정규수업외 회원의 특전 =

1. 기초 무료특강 (전과목)
2. 전국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3. 동영상 무료제공
4. 책임 담임제 관리

동일 (12월) 수강인원 11월 18일 ~ 30일 까지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

7급 공무원

(12월 ~ 1월) 2개월 완성반!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만 따르라!!

79 종합반 개설 강좌 행정직 / 세무직 / 권선직 / 법원직 / 소방직 / 경찰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기술직 / 고령직 / 브도직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올야간반

개강 12.1
종합/당과반
(안약은 찾힌도!)

첫개강 12.1 = 강의시간 =
1930~2250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자매학원 ▶ 김영민학원(광주 중부경찰서 뒤 06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262-3553)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예정

소방직 전문학원

국립유원 시험장급 통합 소방체력특강기 도입

소방체력특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원 무료

6개월 합격학원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특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62-0252